

장현식·김태진 호랑이 변신... 선발·내야 가려운 곳 긁었다



NC와 2:2 트레이드 ... 투수 문경찬·박정수 내취
장현식, 150km 빠른 공 장점, 선발·불펜 전전후 자원
김태진, 내야·좌익수 활약... 줄부상 KIA 내야 보강

KIA 타이거즈가 트레이드 카드를 빼 들었다. '가을잔치'와 '미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IA는 지난 12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가 끝난 뒤 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다. 투수 문경찬과 박정수를 NC 다이노스에 내주고 투수 장현식과 내야수 김태진을 데려오는 조건이었다.

'문경찬'의 이름에 시선이 쏠렸다.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불펜에서의 비중이 줄었지만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마무리' 타이틀을 달았던 선수다.

지난해 KIA의 특급 마무리로 활약을 했던 문경찬은 시즌 초반에도 팀의 뒷문을 지켰다. 어수선했던 지난 시즌 KIA 팬들에게 시원한 야구로 기쁨을 안겨줬던 만큼 팬들의 아쉬움은 컸다.

박정수도 박준표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역할이 기대됐던 6번 차 예비역 사이드암. NC에 두 선수는 우승 행보를 위해 필요한 즉시 전력감이다.

NC는 올 시즌 우승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펜에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2일 현재 NC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6.06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문경찬의 씩씩한 피칭과 밝은 에너지도 NC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됐다.

KIA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선발·불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마운드 자원을 얻었고, 줄부상의 내야에 선택지를 더했다.

장현식은 올 시즌 1승은 거뒀지만 불펜으로만 9경기에 나와 9.2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고, 9.31의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장현식은 NC가 기대하는 마운드 미래였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3년 NC에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을 보낸 뒤 바로 경찰야구단에서 군문제를 해결했다.

선발로 뛰면서 5.29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 9패를 기록했던 2017년에는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나서 두산 베이스의 니퍼트와 대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에 열린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서 국가대표 선발투수로도 뛰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장현식

하지만 이후 기대와 달리 장현식의 걸음은 더뎠다. 2018년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 마무리로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팔꿈치 부상에 시달렸다.

올 시즌에도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과 구위는 그대로였지만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홍상삼의 장점을 살려 올 시즌 새로운 불펜 전력 만든 KIA는 장현식의 구위와 스피드 그리고 가



김태진

능성에 주목했다. 선발 경험이 있고, 최근 선발로 다시 보직 전환을 준비하는 등 선발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KIA는 현재 마운드에서 선발, 불펜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다.

5선발 임기영이 흔들리면서 김기훈을 대체 선발로 준비하고 있다. 박준표의 부상 속 전상현의 부담

이 크고, 씩씩한 정해영도 경험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관리가 필요한 고졸 신인 선수이기도 하다.

장현식을 품은 KIA가 마운드 전력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순위싸움의 분수령이 될 8월 성적이 달라질 전망이다.

KIA는 부상 병동이 된 내야에서 김태진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발목 부상으로 호흡을 골랐던 김태진은 내야는 물론 좌익수로 활용이 가능한 선수다.

얇은 야수층과 야수진의 세대교체는 KIA의 오랜 고민이었다.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던 KIA는 올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공격적으로 내야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나주환의 무상 트레이드를 시작으로 장영석, 류지혁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나주환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영석은 부진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인상적인 신고식을 치른 류지혁은 부상 재발로 다시 기억 없는 재물에 들어갔다. FA 김선빈도 벌써 세 번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KIA 내야에 고민이 쌓였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야수 육성에서 약점을 보였던 KIA는 김규성, 박민, 홍중표라는 미래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

KIA의 공격적인 트레이드가 만든 새바람이 훈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이 선사한 낯설음

4경기 동안 볼넷 허용률 4.05
MLB 닷컴 '류에겐 말도 안되는 일'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제구의 예술가 아니었나?"

MLB닷컴이 올해 부쩍 증가한 류현진의 볼넷 허용 수치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통계' (Crazy stats)라며 의아하게 여겼다.

MLB닷컴은 13일(한국시간) 2020시즌도 약 25%가 지났다며 "정상적 시즌이라면 자리를 잡을 시기지만, 일정이 축소(팀당 60경기)됐고 일부 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차질을 겪으면서 이상한 통계도 속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토론토 구단에서 나온 가장 이상한 통계로는 류현진의 올 시즌 4경기의 9이닝당 볼넷 허용이 4.05에 이른다는 것을 꼽았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최고의 '컨트롤 아티스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특히 이상하다. 류현진은 작년 9이닝당 볼넷 허용 1.2개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1위에 오른 투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현진이 토론토의 임시 홈구장인 뉴욕 버펄로의 살렌필드에서 처음 선발 등판한 12일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볼넷을 2개만 내주는 등 날카로운 제구력을 보여줬다며 "이 부문 통계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16세 고프, 못하는게 뭐야

톱시드 오픈테니스 8강

코리 고프(53위·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톱시드 오픈(총상금 22만5000달러) 단식 8강에 진출했다.

고프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아리나 사발렌카(11위·벨라루스)를 2-1(7-6(7-4) 4-6 6-4)로 제압했다.

2004년에 태어나 올해 16세인 고프는 온스 자베르(39위·튀니지)와 준준결승을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2번 시드를 받은 사발렌카를 잡은 고프는 지난해 윌빙던과 올해 호주오픈에서 16강까지 진출하며 '10대 돌풍'을 일으킨 선수다.

특히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는 2019년 챔피언 오사카 나옴이(10위·일본)를 꺾는 이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고프는 또 올해 5월 미국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회 참여 목소리를 내는 등 코트 안팎에서 당찬 모습을 보이는 선수다.

지난해 10월 만 15세 7개월 나이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WTA 투어 대회 단식을 제패한 고프는 15년 만에 최연소 WTA 투어 단식 우승자가 되기도 했다. 2004년 타슈켄트오픈에서 만 15세 6개월로 우승한 니콜 바이디소바(체코) 이후 나온 최연소 투어 단식 챔피언이었다. /연합뉴스

4분의 기적 ... 생제르맹 25년만에 4강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후반 45분 동점·종료 직전 역전골
이탈리아 아탈란타에 2-1 승리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이 후반 45분부터 내리 2골을 쏟아내는 대역전극을 앞세워 이탈리아(아탈란타)를 따돌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선착했다.

PSG는 13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단판 승부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5분 마르키노스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시간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이 터지면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날 승리로 4강에 가장 먼저 오른 PSG는 RB 라이프치히-아틀레티코마드리드 8강전 승자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4시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결승 진출을 다룬다.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PSG는 볼 점유율에서 63%-37%로 우위를 점하고, 슈팅에서도 17개(유효수 6개)-9개(유효수 4개)로 크게 앞섰지만 전반 중반 내준 선취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후반 45분까지 쫓겨가며 탈락할 뻔했다.

두 팀이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은 이날 경기에서 선취골은 아탈란타가 차지했다.

전반 26분 짧은 패스로 PSG 수비벽을 뚫는 과정에서 볼을 이어받은 마리오 파살리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정교한 왼발 감아차기 솜씨로 볼을 골대 왼쪽 구석에 꽂았다.

선제골을 얻어맞은 PSG는 후반 35분 페널티아크 왼쪽 부근에서 네이마르가 시도한 프리킥이 골키퍼의 손에 걸렸다.

네이마르는 후반 42분에도 아탈란타 수비진의 백패스를 재빨리 가로챈 뒤 골지역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왼발솜을 시도했지만, 어이없이 골대를 훌쩍 빗나가며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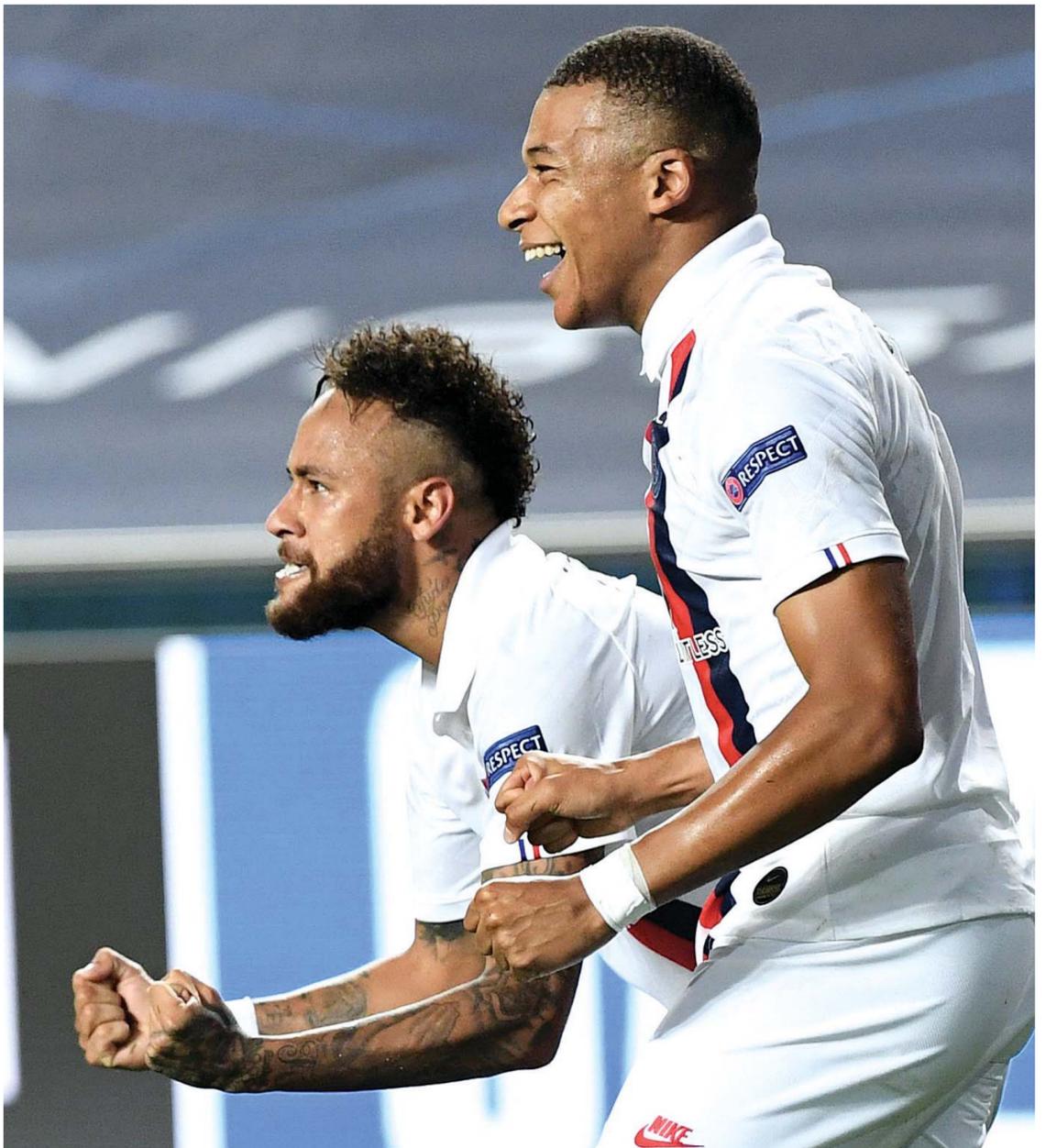
전반을 0-1로 뒤진 PSG의 후반 공세는 더욱 볼을 뽐냈다.

후반 28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빠르게 쇄도한 킬리안 음바페의 오른발솜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3분 뒤 비슷한 위치에서 때린 네이마르의 오른발솜은 위력이 떨어졌다.

잠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한 패배의 기운이 엄습하던 PSG는 후반 34분 마우로 이카르디를 빼고 추포모팅을 조커로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고, 추포모팅의 투입은 '신의 한 수'가 됐다.

추포모팅은 후반 45분 아탈란타 진영 오른쪽에서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던 네이마르에게 크로스를 내줬다.

네이마르는 곧바로 왼발 크로스를 내줬고, 골지역 정면에 있던 마르키노스가 오른발 솜을 했다. 이 볼은 아탈란타의 수비수 마티아 칼다라의 몸에



"우리, 이런 팀이야~"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왼쪽)와 킬리안 음바페가 13일 오전(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두 스포르투 리스보 아이 벤피카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역전 결승골이 터진 직후 승리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맞고 굴절되며 동점골이 됐다.

동점골로 끝이 아니었다. 후반 추가시간 5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PSG는 '네이마르-음바페-추포모팅'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패스 연결로 기적의 역전극을 펼쳤다.

PSG는 후반 48분 네이마르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전방으로 투입한 볼을 음바페가 잡아 크로스를 올리지 골대 정면으로 쇄도하던 추포모팅이 골지역 정면에서 넘어지며 오른발 솜으로 역전 결승골을 꽂았다.

후반 중반 조커로 투입된 추포모팅은 동점골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는 물론 역전 결승골까지 책임지며 해결사 역할을 100% 해냈다.

/연합뉴스